

열왕기하 2.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 (왕하 2 장 1-25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에서부터 ‘벧엘’과 ‘여리고’, ‘요단’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 지역에 남겨 두고자 하였으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요단’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자신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하늘로 옮기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하늘로 올리움을 받던 ‘엘리야’의 걸옷이 ‘엘리사’에게 남겨지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 걸옷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걸옷으로 요단 강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깨닫고, ‘엘리사’를 경배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와 해결 받기를 바랐고,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될 것이란 사실이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1.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엘리사’ (1-6 절)

1) 선지자 ‘엘리야’ // ‘엘리야후’

- 이름의 뜻 -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혹은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는 뜻.
- 사역기간은 북이스라엘 7 대 왕 ‘아합’때부터 8 대 왕 ‘아하시야’때까지 약 22 년.
-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한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음!
- 말라기 4 장 5 절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엘리야’가 나타나리라고 예언!
- 이 예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하기도 함!
- ‘엘리야’는 ‘에녹’ 이후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함!

2) 하나님은 ‘엘리야’를 ‘에녹’처럼 하늘로 옮기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엘리야’를 _____에서 _____로, 또 벧엘에서 _____로, 또 여리고에서 _____으로 옮기셨습니다.

-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길갈과 벧엘과 여리고에서 각각 머물라고 명했음! (2,4,6 절)
- 그럼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했을까요?
-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과 ‘엘리야’의 영혼’을 가리켜 맹세하며,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함!
 - 여기서 먼저 우리는 스승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보게 됨!

- 또한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자신도 직접 보고 경험하겠다는 ‘엘리야’의 영적 열심을 보게 됨!
 -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자!
 - 또한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겠다는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
- 이때 특별히 3, 4 절을 보면, 당시 벳엘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아느냐고 물었음!
- 우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된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었음!
 - 참고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막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 경건과 신앙 운동에 앞장설 제자들을 키웠음!
 -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저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 그럼 당시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을 아느냐고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답함!
 - 여기서 ‘잠잠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된 사역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
 -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여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고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자.

3) 결국 ‘엘리야’는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 강까지 나아왔습니다.

2.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 (7-11 절)

1) 요단 강가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신의 겔옷을 말아 요단 강물을 쳐서 가르는데 기적을 보였습니다. (7-8 절)

- 우선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 50 명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뒤따라와 멀리서 보고 있었음!
-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겔옷을 말아 요단 강을 쳐서 가르는데 기적을 보였다는 것!
 - 우선 ‘엘리야’의 겔옷은 유대인들이 평소 어깨위로 걸치던 긴 망토를 가리킴.
 -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는 이 겔옷으로 요단 강을 가름!
 - 곧 모세의 지팡이나 엘리야의 겔옷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징표!
 -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당시 ‘엘리야’가 자신과 ‘엘리사’를 보고 있는 50 명의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일부러 자신의 겔옷으로 요단 강을 쳐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그 겔옷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증표인 것을 알게 했다고 해석!!

- 요단 강을 건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음. (9-10 절)
 -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구함!
 - 여기서 표현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함!
 - 또한 ‘갑절’이란 표현은 양적인 비율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하던 사역을 계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의미함! -> 곧 ‘두 배’란 의미보단 ‘충분함’을 의미!

- 그럼 이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무엇이라 답했나요?

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엘리야’의 뜻대로 주거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힘!
- 종종 이단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특별한 계시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임!!

②.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

-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천을 보게 하신다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 것!
- 모든 능력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자!

2) 이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11 절)

-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천군 천사들을 상징하고,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함.
- 결국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은 두 번째 사람이 됨!
- 고전 15 장 12 절 이하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엘리야’ 자신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증거함!
-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엘리야’와 같은 영/육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3.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함! (12-18 절)

1)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본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12 절)

-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침!
 - ‘내 아버지’라는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부른 것!
 -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란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같았다고 표현한 말!

- 이때 특별히 ‘엘리사’는 자신의 겹옷을 찢었음!
 - 성경학자들은 당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겹옷을 찢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키던 천군/천사와 같았던 ‘엘리야’의 사라짐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안전과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염려하는 애통함의 표현이었다고 해석!

2)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던 ‘엘리야’의 몸에서 그의 겹옷이 떨어졌습니다. (13-14 절)

- 참고로 이 겹옷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했음.
-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을 취하여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처럼 요단 강을 내려치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음!
 - 특별히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라고 외침!
 - 이 말은 결코 그가 하나님을 의심한 말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부른 믿음의 고백!
 - 특히 당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으로 요단 강을 쳤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
 - 또한 몇몇 학자들은 당시 자신을 보고 있는 50 명의 제자들을 의식한 ‘엘리사’가 좀 전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해석!
 - > 왜냐하면 당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 주신 것으로 확신하며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

3)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50 명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절하며 ‘엘리사’를 경배하였습니다. (15-18 절)

- 참고로 당시 50 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절하고 경배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고, 존경과 순종의 자세를 나타낸 것임!
- 특별히 이때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엘리야’를 찾아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청함!
 -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는 생각지 못한 듯!
 - 그래서 중간에 떨어뜨리셨을 것이라 추측하고는 찾고자 하였음.
- 이때 ‘엘리사’는 처음엔 저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계속된 요청에 그럼 찾아보라고 허락함!
 - 곧 저들의 수고가 잘못된 것이요 헛된 일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엘리사’는 저들의 생각을 단번에 묵살하거나 꾸짖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허락했다는 것!
 - 이후 제자들이 3 일 동안을 헤메이다 빈손으로 돌아 왔을 때, ‘엘리사’는 저들을 꾸짖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는 한마디 말로 앞으로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깨닫게 해 줌!
 - 여기서 참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타인의 판단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거나, 불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줄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 줄 수도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
 - > ex: 바울 사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상대방과 같은 눈 높이에서 대화하고자 노력했음을 기억!

4. ‘엘리사’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행한 첫 번째 사역 (19-22 절)

- 1)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 농작물과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며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 2)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①. 먼저 새 그릇 하나에 소금을 담아오도록 시킴.
 - ②. 여리고 성의 수원지로 나아가 그 소금을 물에 뿌림.
 - ③. 그러면서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고 하신 말씀을 선포함!
 - ④. 그때부터 여리고 성의 물이 맑아져 오늘에까지 이름!
-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 ①. ‘엘리사’가 행한 공식적인 첫 사역은 물을 고치는 사역!
 - 물은 생명을 의미함! -> 예수님의 첫 사역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역이었음!
 - ②. 그런데 그 물을 고칠 때, 특별히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 우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은 소금!
 -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치셨음!
 - 곧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소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자!

5. ‘엘리사’를 조롱하던 42 명의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음. (23-25 절)

- 1) 여리고 성에서 공식적인 첫 사역을 마친 ‘엘리사’가 벰엘로 돌아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습니다. (23 절)
 - 이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한 말은 무엇인가요?
 -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
 - 당시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말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비웃으며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직을 우습게 보면서 조롱한 것!
 -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24 절)
 - 즉시 아이들을 저주함! ->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나와 42 명의 아이들을 죽임!
 - 그럼 왜 ‘엘리사’는 아이들을 향해 저주했고, 하나님은 즉시 곰을 보내 징계하셨을까?

6.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7. 중보기도 나눔